

## 우리들의 모습



2월 8일(주일) - 10일(화) 대신학생 동계연수가 있었습니다. 교구 신학생들이 모두 모여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 아래 우곡성지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 기간 내 올해 신학교에 입학한 손동일 T.아퀴나스, 김태영 사도 요한 신학생을 환영하는 예식도 함께 했습니다.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신 동계연수

## 예비신학생 기본교리



### 기도를 완성하는 마침표, 아멘

예신생 친구들은 기도를 마칠 때, 무슨 말을 해요? ‘아멘’이죠.

히브리어 아멘은 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그렇습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를 확인할 때, 하느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시편의 찬미가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주로 기도와 찬미의 끝에 아멘을 사용했고,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아멘이라고 했지요.

아멘은 예수님도 자주 사용하신 말입니다. 바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라는 말씀에서 “진실로”로 번역된 부분의 원문이 아멘입니다. 얼마나 많은가 하면, 마태오 복음에서 30번, 마르코복음에서 13번, 루카복음에서 6번, 요한복음에서 25번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요한 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아멘 아멘)”라고 아멘을 두 번씩 반복해서 사용하시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느님의 진리에 바탕을 둔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멘’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65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은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아멘을 받아서 완성해 주십니다.

기도 마지막에 반드시 아멘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아멘만큼 훌륭하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글 출처 : 가톨릭신문 제3479호 18면, 2026. 02. 15.

### 기억해요!

#### 1. 예비신학생 개강미사 및 3월 모임

- 일 시 : 3월 15일(주일) 14:00 미사 - 17:00
- 장 소 : 교구청
- 대 상 : 등록된 예비신학생, 부모님, 성소담당자

2026년 3월

## 예비신학생 편지



< 신학생들과 주교님 면담 >



###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3월 19일 요셉

대신학생 - 김기섭 (구담, 연구1)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 예신생과 나누는 성인(聖人) 이야기

### - 성 요셉 (축일 3월 19일) -

우리 천주교에서는 매년 3월에 '성 요셉'을 기억하며 지내요. 하지만 아쉽게도 요셉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와 성장하실 때 잠시 나타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돌아가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사실을 보자면, 요셉 성인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고, 성모님의 남편이며, 예수님의 양아버지이고,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하자 헤어지려고 했지만,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이후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했고,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순례갔다가 예수님을 잃었으나 아들이 학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루카 2,51-52)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가정의 수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어요.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는 "걱정거리나 어려움이 생기면 요셉 성인에게 쪽지를 써서 잠자는 성 요셉상 밑에 넣는다"고 했는데, 예신생 친구들도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요셉 성인과 하느님께 맡기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 신학생으로부터~



예신생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여러분과 함께 예비신학생 모임에 다녔고, 올해 신학교에 입학한 개운동성당 김태영 사도 요한 신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앙보다는 친구들과 형, 동생들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성당에 나갔지만, 세례를 받고 복사 활동을 하면서 신부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아 주시고 웃어 주시던 신부님의 모습을 보며, 저도 그런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성당 생활이 힘들게 느껴지고 성소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예비신학생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니, 성소의 마음을 완전히 놓지 않고 이어 올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깊이 고민하던 중 본당 신부님께 조언을 구하게 되었고, "일단 들어가서 부딪쳐 보라"는 말씀을 통해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권유와 격려 속에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신학교 생활을 통해 성소가 하루하루의 선택과 노력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느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성실히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비신학생 모임에 꾸준히 나오면 하느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개운동 본당, 학부1  
김태영 사도 요한 신학생

## 난 도 리 - 백종현 페르디난도



정말 친구에게는 도움이네.  
내기도 요리를 내게 도와주세요. (10066.12)